

티베트의 고통을 나누다

일본 작가 이하야 토모요전

15일~30일 아하갤러리

개막일 이상록·구희균 연주도

일본 작가 이하야 토모요는 2005년 첫 인도 여행에서 티베트 겪고 있는 고난의 역사를 처음 알았고, 티베트 망명자와 난민들을 만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됐다. 지난 2008년, 티베트에서는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중국 정부는 무력진압으로 응했고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다. 살아남은 자들은 감옥과 수용소에 갇히고 누군가는 티베트를 떠났다.

2012년, 중국에 점령당한 티베트 땅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저항으로 분신투쟁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것은 "애도의 그림"이자 티베트인들에게 평화가 당도하기를 바라는 응원의 그림이었다.

누군가의 아픔에 연대해 예술작업을 이어 오고 있는 일본 작가 이하야 토모요 전시회 '난제, 공명(共鳴)과 공고(共苦)' 전이 15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아하갤러리에서 열린다. 제151회 무등산풍경소리 행사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올 봄 도쿄 와 카야미미술관과 츠시 VOLVOX 갤러리에서 열렸던 두 개의 전시를 바탕으로 새롭게 기획됐다.

도쿄 릿고대학 독문과를 거쳐 캐나다 앨버타 대학 판화과를 졸업한 후 밴쿠버를 거점으로 미국, 멕시코 등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한



이하야 토모요



이상록

국 첫 전시다.

전시 제목인 티베트 말 '닌제(Ninje)'는 '연민', '동정심', 혹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책 '닌제의 철학과 달라이 라마'에서 만난 '공고(共苦: 고통을 나누다)'라는 말과 '공명'을 더해 전시 제목으로 삼았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티베트인들의 삶과 죽음, 투쟁과 난민·망명자로서의 모습 등을 판화, 드로잉,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보여준다.

15일 오후 7시 열리는 무등산 풍경소리 행사에서는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최명진 목사(아하갤러리 공동 관장), 진용주(콘텐츠 도모 기획자·종이밥 프리랜서)씨가 이야기 손님으로 나온다. 또 피아니스트 이상록씨가 그녀의 작품에 영감을 얻어 만든 '오래된 자장가'를 클라리넷 연주자 구희균, 기타리스트 박우영과 함께 연주한다. 작자와의 대화는 16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아하갤러리 (blog.naver.com/ahhagallery), 문의 070-4135-082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순례'

강숙자 기증작품전 동시대 문화박물관 9월 11일까지

꽃과 여인을 주 테마로 삼아 작업을 진행해온 서양화가 강숙자 작가는 최근 동신대에 대표작 20여점을 기증했다. 독특한 색채감과 환상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동신대 문화박물관은 오는 9월 11일까지 강숙자 기증작품전을 진행한다.

강숙자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초상은 다채롭다. '꽃속의 여인'은 보랏빛 여성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장밋빛 인생' 속 여인들은 꽃속에 파묻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나의 친구들' 속 여성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밖에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 '꽃잎' 등도 만날 수 있다.

순천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강숙자는 광주여성작가협회 창립 멤버로 참여,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교문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한·중 당대작가 초대전', '국제여성미술제'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특히 올 초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장밋빛 인생'

아카이브 프로젝트3 -삶과 예술 그리고 여성'전에 원로 조기가 박양선, 서예가 류봉자 작가와 함께 선정돼 지금까지의

작품 세계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의 061-330-382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인협회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18일 풍암동 카페 싸목싸목

마을카페 싸목싸목.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6월 '내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음악을 해설을 곁들여 진행된다. 클라리네스트 선창배, 소프라노 김아람, 남성 4인조 팡페라 크로스포텐, 바

마을카페 싸목싸목.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6월 '내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음악을 해설을 곁들여 진행된다. 클라리네스트 선창배, 소프라노 김아람, 남성 4인조 팡페라 크로스포텐, 바

이울린 박승원, 피아노 김정은 등이 출연한다.

공연 레퍼토리는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 '봄의 노래',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를 연주한다. 이어서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중 '무젯타의 왈츠', 칸초레 나폴레타나의 '나의 태양' 등이다.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062-384-2033)로 예약가능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유·스퀘어 예술시장

15일 야시장 첫 개장

6~8월 셋째 금요일 운영

유·스퀘어가 2층 야외광장에서 낮에 열린 예술시장이 밤에도 추가로 개장한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야시장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올해도 6월~8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10시까지 열린다. 이번달 야시장은 15일 개장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리마켓이다.

작가들이 직접 만든 비누, 옷, 팔찌, 인테리어나 소품과 예술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예술시장에서는 누구나 셀러로 참여하여 작품을 판매하거나, One Day 작업 공방을 열어 자신의 기술을 나눌 수 있다.



지난해 열린 야시장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예술시장'의 모습.

(유·스퀘어 제공)

또 공연을 원하는 밴드는 예술시장이 열리는 날 야외광장에서 직접 공연도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

자 메일(sekmax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매달 1~10일까지 받고 있다. 한편,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낮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에는 기존의 예술시장이 열린다.

문의 062-360-843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은수 시집 '히아신스를 포기해' 발간

고은수 시인이 계간 시산맥 제18차 감성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 '히아신스를 포기해'를 발간했다. 모두 6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작품집은 내적 세계를 지향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꽃의 골목', '크레바스', '툼이 자란다' 등의 시가 대표적으로 외양보다는 내면을 추구하는 의식이 투영돼 있다.

표제시 '히아신스를 포기해'는 히아신스라는 꽃을 소재로 화자의 지향이 무엇 인지를 보여준다. 백합과에 딸린 히아신스는 이른 봄에 피는 관상용 식물이다. '밝기만 한 인생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것에서 보듯 세계의 이면이 드러워진 본질을 천착한다. 꽃을 피워내는 과정에서 필요했어 아픔과 고통, 절망의 순간을 화자는 특유의 감성적이며 시적인 언어로 노래한다.

김윤정 문학평가는 해설에서 "찰나적인 화려함을 향해 바치는 일시적인 기



이 틀림없다. 그것이야말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마음의 온전한 소통에 속하는 일인 것이다"고 평한다.

한편 고은수 시인은 부산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2016년 '시에'로 등단했다. 2014년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국악원 금요국악공감

내일 국악연주단 공연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이 15일 오후 7시 진양당에서 농번기 군민의 고단한 심신을 달래줄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6월 들어 3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금요국악공감)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악 합주 '시나위', 가야금병창 '호남가',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회상' '그리는 대목', 전통춤 '입춤', 남도민요 '흥타령', 전통춤 '설장고춤', 징, 북, 장구, 팡과리가 어우러진 사물놀이 '판굿'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민속악 위주의 컨셉으로 진행한다.

공연 당일 오후 6시 20분 진도읍사무소 앞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무료관람. 문의 061-540-4031-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 같은 편안함!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세미-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대표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